



10년 수소융합 검사지원센터 '첫 삽'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원 2길 6번지

2022년 12월 8일 목요일 (음 11월 15일) 제3157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새만금사업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투자진흥지구 지정 근거 담아
법사위 전체회의서 법안 의결
새만금 사업 추진 탄력 기대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 근거 등을 담은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지난 2020년 9월 국토위에서 가결했으나, 2020년 11월 법사위 상정 논의 후 계류하다가 만 2년이 지난 올해 법사위에서 다시 심의됐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새만금개발청장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 유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새만금개발공사 사업에 투자진흥지구의 조성에 관한 사항 추가 △새만금 기본계획(MP) 제안 시 관한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 등이다.

이번 개정으로 새만금이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면 경쟁력 있는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새만금 사업이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새만금이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될 근거



출발! 전주시 환경관리원 공개경쟁 채용 체력평가가 열린 7일 전주시 어울림국민체육센터에서 체력평가에 응시한 응시생들이 최선을 다해 시험을 치르고 있다. (관련기사 5면)

거가 마련되는 것으로, 도는 새만금사업법 개정과 함께 조세 감면의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안도 금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국회 심의통과의 결실을 맺기 위해 본회의까지 여야 양 당간 긴밀하게 협력하고, 도민 여러분의

의 뜨거운 열망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새만금 개발 가속을 통한 전북 발전을 꼭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경수 기자

국내 복귀기업 투자 유치 국내에서 첫 사례 만든다

전북도, 기업 애로 해소
해결 적극행정 돋보여

오디텍, 中 남경 공장철수
완주과학산단에 설비 투자

전북도가 해외에 진출한 기업 가운데 국내로 복귀하려는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면서 추가 투자까지 이끌어내 기업유치를 위한 적극 행정이 돋보이고 있다.

7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에서 기업활동을 펼치고 있는 (주)오디텍이 중국의 남경공장을 철수하고 78억원을 투자해 완주 소재 전주 과학산단에 반도체 팹리인을 설비하고 반도체 칩을 생산하기로 했다고 알렸다.

이는 특히 지난 11월 1일 해외 진출 기업이 공장 신축이나 증축 없이 기존 국내 공장 유휴 공간에 설비를 신규, 추가로 도입하는 경우에도 국내복귀 기업으로 인정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해외진출 기업복귀법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 국내 첫 사례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1월 30일 공식 선정했다.

이처럼 전북도가 해외진출기업의 복귀를 도우면서 투자유치를 만들

어낸 것으로 기업유치를 도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관련법을 비롯해 중앙부처의 동향을 면밀히 분석해 온 것이 적중했다는 자랑이다.

김 지사는 “개정안 시행으로 기존 국내 공장에 설비를 추가하기만 해도 국내복귀기업으로 인정돼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기존과 유사하게 투자보조금, 고용창출장려금 등은 물론, 정부정책과 연계한 우리도 차원의 규제개선, 세금감면, 물류비 지원 등 인센티브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당부한 바 있다.

(주)오디텍 측 관계자는, “전북도와 완주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향후 지속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기업 성장과 함께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운동목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앞으로도 국내로 복귀하려는 도내 기업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들의 동향을 잘 살펴 기업유치의 폭을 넓혀 나갈 계획이다”며 “복귀 기업을 유치하는데 그치지 않고 투자보조금과 법인세 감면, 신규 고용인원에 대한 고용창출장려금 등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경수 기자

서 교육감 야심작 '전북 농촌유학사업', 내년에도 추진

정읍 영원초·용동초·이평초, 김제 벽량초, 완주 동상초·운주초 등 도내 22개 학교에서 운영
도교육청, 초등 1년부터 중학교 2년생 대상 내년도 유학생 모집 나서... 기간은 내년 3월 1일부터

서거석 교육감이 지자체와의 협력사업으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전북 농촌유학사업이 참여 학생과 학부모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에 따라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내년도도 전북농촌유학 협력 학교로 도내 22개 학교를 선정해 가족체류형 48가구, 홈스테이형 37가구, 유학센터형 3개로 운영할 예정이다.
22개 협력학교로는 정읍시에서 영원초, 용동초, 이평초 등 3개교가, 김제시에서는 벽량초가, 완주군에서는 동상초, 운주초, 운주중 등 3개교가, 진안군에서는 조립초가, 무주군에서는

적상초, 무풍초 등 2개교가, 장수군에서는 산서초다. 또한 임실군에서는 지사초, 대리초, 청운초 등 3개교가, 순창군에서는 시산초, 인계초, 팔덕초, 쌍치초, 동산초, 적성초 등 6개교로 가장 많다.
이어 고창군에서는 동호초, 부안군에서는 영진초가 있다. 협력학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도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 농촌유학 운영 내용으로는 가족체류형, 홈스테이형, 유학센터형 등이 있다.
먼저, 가족체류형은 가족 전체 또는

일부가 이주해 마을 및 지자체가 제공하는 주택에서 생활하는 형태다. 홈스테이형은 학생이 학교 통학구 내 농가에서 농가 부모의 보살핌을 받으며 생활하는 형태를 말한다. 마지막은 유학센터형은 학생 여러 명이 법인격을 갖춘 단체에서 활동가의 보살핌을 받으며 생활하는 형태다.
개인 유학경비는 도교육청에서 월 30만원을 지자체에서 월 2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찾아오는 학교 교육을 통한 귀촌이라는 타이틀 아래 2023년 농촌유학생 모집에 나

섰다.
대상은 전북 이외 지역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로, 유학기간은 2023년 3월 1일~2024년 2월 29일까지 1년이다. 가족체류형은 초1~중2, 홈스테이형·유학센터형은 초4~중2까지다.
한편 농촌유학이란 전북도와 관외 지역의 초·중학교 학생이 전북지역 농산어촌 학교에 1년 단위로 전학해 도내 농촌유학 협력학교를 중심으로 유학생과 재학생이 협동학습, 생태학습 등의 교육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31일 관련 조례를 근거로 도교육청은 전북도청, 서울시교육청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정은성 기자

국토부 '고령자복지주택' 공모에 순창군 선정

전북도(도지사 김관영)는 국토교통부의 고령자복지주택 공모사업에 순창군이 선정돼 국비 68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공모를 통해 '고령자복지주택사업' 대상지로 전북 순창군(100호)을 비롯해 경기 광주, 강원 평창, 경남 하동 등 4개 지구(243호)를 선정했다.
고령자복지주택사업은 어르신이 주거와 돌봄 지원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저층부에는 복지관을, 고층부에는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김경수 기자

어르신들을 위해 안전 손잡이, 높이 조절 세면대 등의 무장애(barrier-free) 특화시설과 건강·여가시설 등을 설치하고,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공급하기 때문에 여가생활을 마음껏 즐기기를 희망하는 분들에게 인기가 높다.
이번에 선정된 순창군은 공모 사업을 통해 치매안심센터, 건강증진센터 등을 특화한 고령자 특화 복지시설 1,000㎡를 설치하고, 어르신이 주거와 돌봄 서비스를 함께 받을 수 있는 주택 1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김경수 기자

무주 겨울을 열다

짜릿짜릿한 겨울
포근포근한 겨울
낭만가득한 겨울

무주에 오면 다 있습니다
무주를 열면 다 있습니다

muju 여행문의 1899-8687 http://tour.muju.go.kr